

민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부처님 오신날 기도 입재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부처님 오신날 기도 회향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지역 법등 법회는 쉽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사람으로 태어남은 커다란 사건이고,
 삶은 쉬지 않는노력이네.
 부처님 가르침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부처님 이 세상 오심은 아주 드문 사건이네.

**It is a great event to be bone a man; and his life is an ever-striving. It is not often
he hears the doctrine of Truth; and a rare event is the arising of a Buddh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4 년은 부처님 말씀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 오신날 의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적 혼돈, 그리고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불자가 이 시대에 처방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2548 Buddha's Birthday



세계속의 부처님 오신날

한국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국민적 축제로 보낸다. 특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의 탄신일인 웨삭이 1년 중 가장 큰 축제일이다. 웨삭은 베사카라고도 하는데 음력 4월 중 달이 가장 큰 날인 만월일로, 음력 4월 15일을 이른다. 이때가 되면 지금도 불교도들은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등을 만들어서 대문에 걸어 무명중생을 위해 밝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자신들의 미래 희망을 담은 등을 만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식이 항공기 조정을 원하면 비행기 모양의 등을 만들고 배를 타기를 원하면 배 모양의 등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등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관욕(灌浴)의 풍습이 있다. 이 풍습은 농경 사회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물축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풍습이다. 한국에서도 근래에 와서 관불 또는 관욕이라고 하여 정수리에 물을 뿌리는 풍습이 다시 시작되었다. 관욕의 유래는 고타마 싯달타가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했을 때 아홉 마리의 용이 나타나 목욕을 씻겨준 데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국민의 80% 이상이 불교인 이 나라는 웨삭(Wesak)이라 하여 음력 4월 15일 당일과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제정. 부처님의 탄생일, 성도일, 열반일을 모두 함께기려 성대한 축제를 펼친다. 모든 신도들은 흰 옷으로 갈아입고 종일 절에서 보낸다. 흰옷은 청정과 순결을 의미한다. 신도들은 기름등, 꽃, 향, 초등을 공양으로 올리며 스님들에게 필요한 가사, 비누 등 생활용품도 공양으로 올린다. 스님들은 종일 절에서 법문을 하거나 토론회를 갖고 신도들은 명상과 팔리어를 암송한다. 또 축제 때 불치(부처님 치아)를 모신 사리함이 공개되며 1백 8마리의 코끼리행렬이 장엄하게 펼쳐진다. 신도들은 집 대문에 커다란 아치형의 장식을 꾸미고 밤이면 네온사인 장식을 하여 화려한 축제 무드를 조성한다.

미얀마: 인구의 85%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의 부처님 오신날은 '까송쉬우내톤'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깨끗한 물을 보리수에 끼얹는다.'는 뜻이다. 신도들이 복을 짓기 위해 은으로 된 그릇에 물을 길어가 관욕시키고 촛불을 탑 주변에 켜놓고 소원을 비는 행사이다. 관욕식을 끝낸 미얀마 인들은 대문을 모두 열고 길가는 사람을 위해 차, 과일, 담배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태국: 인구의 97%가 불교도로 불교국가라 할 수 있는 태국은 5월중의 만월일(우리나라 음력 4월 15일)을 부처님 오신날로 정해 이날을 베사카(Vesak)라 부른다. 이날은 국경일로 35일간 국기와 불교기가 게양되며 각 사원의 법회실황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보도한다. 베사카에 참석한 불자들은 등이나 촛불을 켜들고 금중이를 사서 불상에 붙이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한다. 특히 태국국민들이 부처님 오신날에 가장 정성을 드리는 일은 스님들에게 고양을 올리는 것으로 음식, 꽃에서 치약, 휴지 등에 이르기 까지 일용품을 공양하기도 한다.

인도: 라닥이나 아산지방은 힌두교가 득세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불교의 전통적인 풍습이 남아있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고 있다. 인도에서의 부처님 오신날은 인도력 제 2월의 만월일(우리나라 음력 4월 15일)로 붓다자얀티(Buddha jayanti)라 하여 국가 경축일로 제정되어 온 국민이 이날을 경축한다. 녹야원을 중심으로 봄베이, 산치등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바라나시에서는 시가행진이 벌어진다. 이날 저녁 사르나드 초전법륜 탑 앞에는 스님 신도들이 촛불을 켜고 밤 늦도록 탑을 돌거나 기도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일본: 전체 국민의 약 80%가 불교 신자인 일본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양력을 사용하는 일본은 양력 4월 8일 「하나마쓰리」(꽃의 제전)라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있다. 각 사찰에서는 대웅전앞에 봄에 피는 갖가지 꽃으로 당우를 만들어 탄생불상을 안치하고 단차(아미차,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단맛이 나는 차)로 천불계를 독송하면서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킨다.

대만: 독경위주로 조용히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한다. 종파에 따라 양력 4월 8일과 음력 4월 8일을 석탄일로 봉축하고 있다. 국민의 약 70%가 불자인데 우리나라 같은 연등행사는 없고, 대신 백화유로 불을 밝히고 꽃, 과일, 다과공양과 방생법회 및 양로원, 병원, 극빈자, 탁아소들을 방문하여 대중공양을 베푼다. 또 손문기념관이나 중상당 등 각지에서 모인 승려 신도대표들과 5 부요인, 관료, 시민들이 참석하여 육불의식을 한다.

네팔: 티베트 달력을 사용하는 네팔의 월력은 우리와 달라 음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날이지만 우리보다 빠르다. 수도 카투만두의 1천 5백년 역사를 지닌 스와얌푸 사원에서 아침부터 대법회가 시작된다. 음악과 춤 속에 탑돌이행사가 진행되고 세존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전시된다. 오후에는 왕과 왕족 및 국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를 진전하는 봉축행사가 있고 저녁으로는 봉축 점등식이 열린다.

홍 콩: 음 4월 8일이 석탄일 사찰부속학교가 많아 강연회 세미나 등의 행사 위주며 사찰행행사는 신도 참배와 철야정진 등의 참회의식뿐 별다른 행사는 없으며 각 사찰별로 나름대로 간소하게 지낸다. 그중 많은 신도들이 세계 최대의 청동좌불이 계신 란타우 섬의 보림사를 방문한다. 이 불상은 무게가 202 톤이고 높이가 26 미터이다.

불자가 가져야할 마음가짐

부처님이 사위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존자 사리풋타는 부처님을 모시고 여름 안거를 마친 뒤 사람들에게 설법하기 위해 행각을 떠났다. 사리풋타가 기원정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그는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를 떠나갔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즉각 사람을 보내 사리풋타를 기원정사로 되돌아오게 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존자 아난다는 사리풋타가 공개적인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기원정사에 머무는 대중들을 모두 강당으로 모이게 했다. 부처님이 사리풋타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떤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유행을 떠난 적이 있는가?”

“부처님. 대지(地)는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지는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스럽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대지와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나이까?”

또한 흐르는 물(水)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스럽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흐르는 물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나이까?”

또한 불(火)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은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스럽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불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나이까?”

또한 바람(風)은 온갖 깨끗하고 더러운 것, 대변과 소변, 눈물과 침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창피스럽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저 바람과 같이 지극히 넓고 커서 맺힘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다툼도 없나이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나이까?”

사리풋타의 진실한 해명을 들은 부처님은 오해를 한 수행자를 나무라고 대중 앞에서 참회토록 했다.

-중아함 제 5 권 24 경 <사자후경(獅子吼經)> -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뜻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선의로 말했는데 상대는 거꾸로 해석해서 오해하거나, 시기나 질투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일도 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불교를 공부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사리풋타의 입을 통해 대지와 물과 불과 바람의 덕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저 대지와 물과 불과 바람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애증(愛憎)과 정예(淨穢)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이것이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아무나 갖기란 어렵다. 사실을 말하면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는 사람도 이렇게 용심(用心)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불자란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근처에 다가갈 수 없다. 불자로서 이런저런 평계로 부처님 곁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 경을 읽고 마음을 다잡을 일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홍사성

부처님이 비판한 삼중외도

신의론.숙명론.우연론은 ‘어리석은 믿음’ / 인간 자유의지 부정...행복과 멀어/ 연기의 진리로 삶의 연꽃 피워야

불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불교가 아닌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삼중외도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은 무엇이 불교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삼중외도와 그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아두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의 인도 사회는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라문교의 쇠퇴 내지 붕괴에 연유한다. 그때까지 인도사회를 지배해 오던 바라문교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더 이상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엄청난 사상적·종교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바라문교에 대한 도전 세력은 우후죽순과도 같았으니, 불교문헌에 따르면 여섯 가지(六師外道) 또는 62 가지의 사상이 출현하였고 자이나교 문헌에 의하면 무려 363 가지의 사상이 난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통 바라문교는 물론 새로운 일반 자유사상들 중, 그 어느 것도 궁극적 진리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피나는 구도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참다운 진리를 깨달아 그것을 세상에 퍼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결코 진리로 인정할 수 없었던 당시 사상·종교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부처님의 비판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초기경전인 <중아함> ‘도경(度經)’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당시의 복잡한 사상과 종교를 크게, 존우화작인론(尊祐化作因論), 속작인론(宿作因論), 무인무연론(無因無緣論)으로 나누고 있는데, 후세의 불교학자들은 이것을 삼중외도(三種外道)라 일컫는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각각 신의론(神意論), 숙명론, 우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론이란, 괴로움과 즐거움, 불행과 행복, 슬픔과 기쁨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의 근본원인이 신(神; 梵天)의 뜻이라고 하는 주장인 바, 이것은 곧 정통바라문교의 사상이다. 숙명론이란 그 근본원인이 과거생의 숙명이라고 하는 주장이고, 우연론이란 그 근본원인이 우연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 둘은 수많은 일반 자유사상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부처님은 궁극적 진리의 조건을 다음 두 가지로 보신 것 같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모순 없이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창조적 노력과 도덕적 가치를 뒷받침하고 북돋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인간다운 소이는 동물처럼 본능대로만 살지 않고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며,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땀흘려 노력하는 것이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삼중외도의 사상은 이렇게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창조적 노력과 도덕적 행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 근본원인이 신의 뜻이나 숙명 또는 우연에 있다고 한다면, 도둑질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라든가 법적 제재는 그 이론적 근거를 잃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죄악이 횡행하여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세상은 마침내 정글처럼 위험한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신의 뜻이나 숙명 또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굳이 힘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세상 역시 내버려둔 폐가처럼 결국은 황폐화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은 삼중외도를 궁극적 진리로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불교 밖의 그릇된 사상[邪道], 즉 외도(外道)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 마디로 부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도덕적 행위와 창조적 노력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상은 결코 궁극적 진리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삼중외도가 2500 여 년 전의 인도 대중들 뿐 아니라 21 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빠지기 쉬운 사상적·종교적 함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빠져들기 쉬운 그릇된 사상적 경향을 이미 꿰뚫어 보기라도 하신 것 같다. 지금 우리 이웃과 지구촌에는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 신앙으로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점괘와 사주팔자에 한 눈을 팔고 모든 것을 숙명 탓으로 돌리려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숙명론적 인생관의 소유자도 많다.

인생은 우연일 뿐이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한탕주의자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세계관과 인생관에 물든 사람은 결코 자유와 평화,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없다. 한시바삐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의 진리로 삼중외도의 그릇된 사상을 정화시켜 향기로운 삶의 연꽃을 피워낼 일이다.

법회소식 NEWS

- 일년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등은 7월 기도후에 일년간 법당에 모십니다. 신도님들은 본인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2548년째 맞는 부처님 오신날 연등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선해 주십시오. 본인도 불사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동참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무량한 복을 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 관등 모연문”은 사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참금은 미국에서는 50불이고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신도님들은 5만원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데로 1인 1등을 하실것인지 가족등으로 한등을 켜실것인지는 신도님들 각자가 결정해 주십시오. 현재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나 생활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동참금을 절충해 주십시오.
- 대한 불교 조계종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 이곳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원된지 5월로 만 2년이 됩니다. 그동안 불국사 신도님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불국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주신 불국사 후원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국사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후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부처님 오신날 기도 입제: 5월 16일 (양력) 11시
기도 회향: 5월 23일 (양력) 11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2004년 5월 23일 11시
-부처님 전에 꽃공양 및 관불의식, 연등 만들기등이 있습니다.-
-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도와 참회 그리고 베푸는 삶은 우리불자들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불국사 신도님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 정진하는 생활을 해 나가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집에서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사찰에 알려주십시오. 되도록이면 기도 입제와 회향은 법당에서 가져 주셨으면 하고 입제 축원과 회향축원은 스님이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불국사 신도님들 도 기도하시는 신도님들을 같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백일기도 입제: 김수현 (4월 25일)
- 5월에는 부처님 오신날 행사관계로 인해서 3째주에 있는 교리탐구와 4째주에 있는 독경기도는 없습니다. 법회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 진성 심환우 불자님께서 5월 15일 (토요일)날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심환우 불자님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국사 가족은 사찰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그리고 진성 심환우 가족은 미국 불국사에서 참석하는 5월 16일 법회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현재 한국 구미에 있는 삼성에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여여심 이인영 보살님의 시아버님이신 Joseth Spethen Prosciewicz 영가님의 추모식이 5월 19일날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정기법회 공지사항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불국사의 상징이 될 불국사 정문앞 정원에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기 위해서 현재까지 인수 레스토랑, 정혜주 보살님, 변정자 보살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국사 후원회(불국회)에서는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조실 스님이시기도 한 강석주 큰스님께서 운영하는 양로원인 보문선원 안양원에 4월 18일날 대중공양을 큰스님을 모신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특히도, 도살풀이 춤 전수자이신 이정희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법당에서 큰스님, 스님들 및,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모시고 공연해주신 승무와 살풀이 춤은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멀리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이정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불국회에서는 이정희 선생님의 지도하계 불국회 회원님들의 춤숨씨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 위치한 비구니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춤공연도 갖고 있습니다.
푸짐한 음식을 정말 푸짐하게 만들어 오신 불국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큰스님께서 보문선원 생간이래 이렇게 많은 고귀한 음식을 양로원 식구들에게 공양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